시연칼럼

한날한시 출발

권오신
칼럼니스트, 좌윤공파회장

경주 운곡서원(雲谷書院) 은행나무는 250년 세월을 지켰다.

앞으로도 천년 세월은 거뜬히 지키고도 남을 만큼 가지와 잎이 지금도 싱싱하다. 운곡서원 견심문(見心門)을 지나면 용추 절벽을 비켜가는 곳에 앉은 유연정(悠然亭,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345호)과 어우러져 해를 맞고 그늘을 가리면서 시심(詩心)을 키우고 유생(儒生)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곳으로는 가장 알맞은 곳이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뱅이는 굴러서/ 한날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 했다. 손택수 시(詩)에서...

황새나 말처럼 날고뛰는 재주를 가졌다고 해서 자랑할 이유도 없고 달팽이나 굼뱅이처럼 굼뜨다고 한탄할 이유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그 숱한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설날 아침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마음이 설렌다. 누구든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 우리말 설날을 한자어로는 원단(元旦)· 연시(年始)· 연두(年頭)· 세수(歲首) 등으로 부른다. 같은 해가 솟아도 새해는 늘 새롭기만 하다.

첫 눈뜸에/ 눈 내리는 청산을 보게 하소서/ 초록 소나무들의 청솔바람 소리를 듣게 하소서/ 아득한 날에/ 예비하여 가꾸신/ 은총의 누리/ 다시금 눈부신 상속으로 주시옵고/ 젊디젊은 심장으로/ 시대의 주인으로/ 사명의 주춧돌을 짐지게 하소서/ 첫 눈뜸에/ 진정한 친구를 알아보고/ 서로의 속사랑에/ 기름 부어 포옹하게 하여 주소서...(김남조 새해아침의 기도)

대문호 괴테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자립 생활, 좋은 결과를 얻을 때까지 노력하는 인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낼 희망, 이웃을 돕는 나눔 정신 등 다섯 가지를 출발하는 마음을 행복 조건으로 들었다.

송대(宋代) 시인(詩人) 도연명(陶淵明, 365~427)은 새해 아침을 맞는 젊은이들을 향해 이런 시(詩)를 남겼다.

성년은 다시 오지 않고/ 하루에 두 번 새벽은 없으니/ 때를 따라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야 하며/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경상도 장기에서 전남 강진으로 유배지를 옮긴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이 계해년(癸亥年 1803) 새해를 맞은 두 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군자는 새해를 맞이하면 반드시 그 마음과 행동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약용(丁若鏞)은 자신의 유배로 벼슬길이 막힌 자식에게 '폐족(廢族)'의 후손도 성인(聖人)이나 문장가(文章家), 참선비로 가는 길은 막히지 않았으니 학문 정진을 권했다.

시간은 지나고 보면 별 것이 아닌 것도 가슴 저리는 추억으로 남긴다. 지금의 60대는 중학생 시절 운전기사 뒷자리에 앉아 통학했던 순간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또렷하게 남는 게 행복한 모습이라고 말한다.

이 시절 여학생(女學生)들은 귀지를 파주던 엄마의 무릎 감촉을 들었다.

채근담(菜根譚)엔 혹서와 혹한의 날씨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게 차고 더운 세간 인심의 이라 했고 그 인간 세상의 염량(炎凉)보다 벗어나기 힘든 것이 내 마음에 서린 빙탄(氷炭)이라고 적었다. 과거나 현재나 물질문명이 풍요롭던 그러지 않던 숯덩이, 얼음덩이를 가슴에 품고 몸부림치며 사는 게 세상이다.

영어로 1월을 뜻하는 재뉴어리(January)의 어원은 로마신화에서 두 얼굴을 가진 신(神) 야누스(Janus)에서 비롯됐다. 한 얼굴은 방금 지나간 해를 바라보고 다른 한 얼굴은 앞으로 닥칠 해를 바라본다는 것이다.

우린 새해 새 아침을 보내고 얼마 안 가 다시 설날을 맞을 수 있어 더 행복하다. 곧 설을 맞이한다는 것은 따끈따끈한 찐빵 하나를 덤으로 얻은 것 같은 행운이다.

2023년은 정치변화가 극심하고 남북관계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고 청년 백수에다 하층민들의 낙오감이 쉽게 치유되지는 않는 해가 될 것 같다. 그렇지만 모두는 일신(日新) 일신 우(又) 일신,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이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는 길로 여기고 저마다 승리하는 계묘년(癸卯年), 성공의 한해, 영광의 한해, 보람의 한해를 만들어야 한다. 부정보다는 긍정의 힘을, 내가 나의 마음과 정신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가장 긴요한 길이며 난세(亂世)에서도 성공하는 길이다.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21〉

삼암집(參巖集)

권갑현 편집위원장

〈삼암집〉은 삼암(參巖) 권희인(權希仁, 1558~1593)의 시문집으로 3권 1책의 목판본이다.

공은 안동권씨 시조 태사공의 25세로 별장공파(別將公派)이다. 아버지 어모장군(禦侮將軍) 권언균(權彦均,1528~1580)의 장남으로 안동 풍산현(豐山縣) 오미동(五美洞)에서 태어났다. 자는 사안(士安)이며, 삼암은 호이다.

19세에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1542~1607)의 문하에 들어갔다. 서애의 권유로 무예를 닦아 22세인 1579년에 무과에 장원 급제하였다.

이듬해에 부친상을 당하여 3년상을 치른 뒤, 벼슬에 나아갈 뜻을 끊고 고향인 안동 풍산에 삼암정(參巖亭)을 짓고 살았다. 34세인 1591년에 서천포만호(舒川浦萬戶)에 제수되었다.

이듬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영남 의병장 김면(金沔,1541~1593)의 휘하에 들어가 활약함으로써 옥천군수(沃川郡守) 겸 충청도조방장(忠淸道助防將)에 제수되었다.

이때 의병을 널리 모아 고을을 방비하니, 호서절도사(湖西節度使) 김시민(金時敏,1554~1592)이 격문(檄文)을 보내어, 영남에서 호남으로 넘어가는 팔량현(八良峴)을 지키키는 파절장(把截將)으로 삼으니 이에 공이 함양(咸陽)으로 가서 8개월을 지켰다.

1593년 7월에 동료 변성규(邊星奎)·이응보(李應輔)와 공의 조카 권협(權協)·권흘(權忔) 등과 함께 독산(禿山)에 주둔한 왜군이 큰 비로 인해 조총(鳥銃)을 쓸 수 없게 된 틈을 타 기습하여 적을 격파하였다.

이때 적의 정예병이 거의 섬멸될 무렵 숲속에 잠복해 있던 왜병의 총탄에 맞아 선조 26년 1593년 10월 26일에 36세로 전사하였다.

함양 고을 서쪽의 죽두현(竹頭峴)에 임시로 장사지냈다가 1594년 봄에 고향인 안동 풍산읍 오미리 아미산(峨眉山) 간좌(艮坐)에 귀장(歸葬)하였다.

통정대부(通政大夫) 병조참의(兵曹參議)에 추증되었다. 〈선조실록(宣祖實錄)〉과 〈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에 사적이 실렸으며 풍산의 충효사(忠孝祠)에 제향되었다.

배위 숙부인 연안송씨(延安宋氏)는 참봉 송팔주(宋八柱)의 따님으로 명종 11년 1556년 4월 8일에 나서 광해군 9년 1617년에 62세로 졸했으며 묘소는 합폄이다.

〈삼암집〉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책머리에 고계(古溪) 이휘령(李彙寧,1788~1861)과 해은(海隱) 강필효(姜必孝,1764~1848)의 서문에 이어 세계도(世系圖)가 실려 있다.

권1에는 시(詩) 5제 6수, 서(書) 4편, 기(記) 1편이 실려 있고, 부록으로 진정문(陳情文), 〈옥천군선생안(沃川郡先生案)〉과 〈안동부여지지(安東府輿地誌)〉의 관련 기록, 그밖에 종형(從兄) 권희례(權希禮)의 〈기옥천사(記沃川事)〉, 김서구(金叙九)의 유사(遺事)와 가(歌), 김양근(金養根,1749~1799)의 전(傳), 종형 권희례의 뇌사(誄詞), 종질 권협(權協), 재종질 권흘(權忔)의 제문, 증손 권유(權瑜,1679~1743)의 행장, 류이좌(柳台佐,1763~1837)의 묘갈명, 김상원(金尙元)의 〈퇴암리사봉안문(退巖里社奉安文)〉, 안윤시(安潤蓍)의 상향축문(常享祝文), 이종상(李鍾祥)의 〈반계리사봉안문(盤溪里社奉安文)〉이 수록되어 있다.

권2는 공의 증손 권유(權瑜)의 문집인 〈감모재일고(感慕齋逸稿)〉이다. 시(詩) 2제 4수, 기(記) 1편, 문(文) 5편과 부록으로 행장, 전(傳), 묘지명, 만사가 수록되어 있다.

권3은 이들 조손(祖孫)의 정려(旌閭)를 받는 데 필요한 기록을 수집한 〈충효록(忠孝錄)〉이다. 찬(贊) 1편, 정문(呈文) 2편, 유소(儒疏) 4편, 부록으로 권유의 서모(庶母) 이씨(李氏)의 행적을 기록한 〈열녀이씨전(烈女李氏傳)〉 등이 있다. 권말에 류진익(柳進翼)과 권시성(權時聖)의 후지(後識)가 있다.

본 〈삼암집〉은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넷 사이트 영남사림문집 디랙토리에 이미지 원문과 컴퓨터 입력 원문이 실려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원문 이미지를 열람할 수 있다.

다음은 본집 권1의 시(詩) 〈삼송(三松)〉, 〈삼암정(參巖亭)〉, 〈검무산(劍舞山)〉 세 수를 국역한 것이다.

三松(삼송) 소나무 세 그루

葉戰獰風老(엽전영풍노) 솔잎은 모진 바람과 싸우느라 노쇠하고
根盤積土榮(근반적토영) 뿌리는 쌓인 흙에 서려있어 번성하였네
千秋特立節(천추특립절) 오랜 세월 절개 있게 우뚝 서있었는데
謾作路傍亭(만작로방정) 어쩌다가 길옆의 정자 신세 되어버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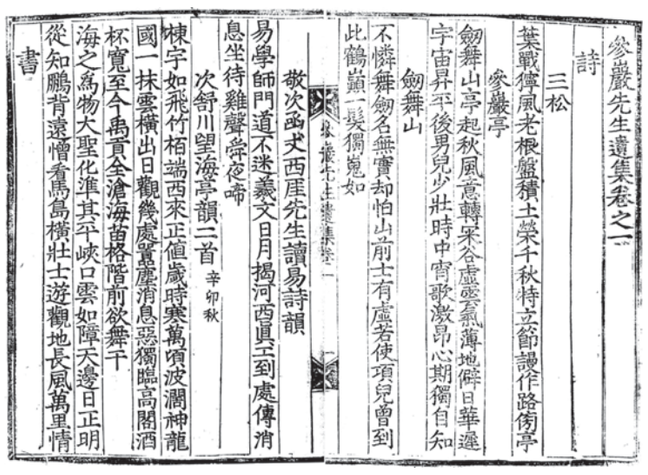
參巖亭(삼암정)

劍舞山亭起(검무산정기) 검무산에다 정자 하나 세웠는데
秋風意轉采(추풍의전미) 가을바람 부니 더욱더 생각나네
谷虛雲氣薄(곡허운기박) 골짝이 텅 비어 구름 기운 적고
地僻日華遲(지벽일화지) 땅이 외져 햇볕이 더디게 드네
宇宙昇平後(우주승평후) 세상은 태평성대가 지난 뒤이고
男兒少壯時(남아소장시) 사나이는 젊고 혈기왕성한 때네
中宵歌激昂(중소가격앙) 북받쳐서 한밤중에 노래 부르니
心期獨自知(심기독자지) 정자 유달리 이 마음 알아주네

劍舞山(검무산)

不憐舞劍名無實(불련무검명무실)
검무산이 유명무실한 것이 가엽지 아니하고
却怕山前士有虛(각파산전사유허)
바로 이 산 앞 선비들 거짓 있음이 부끄럽네
若使項兒曾到此(약사항아증도차)
초나라의 항우가 일찍이 이곳에 왔었더라면
鶴巔一髮獨嵬如(학전일발독외여)
학가산은 볼품없이 혼자만 우뚝했을 것이네

검무산(332m)은 공이 살던 풍산 오미동 앞산이며 현재 경북도청 뒷산이다. 22세에 무과 급제한 공은 23세에 부친상을 당하여 3년 상을 치른 뒤 이 산에 삼암정을 짓고 34세에 서천포만호에 제수되기 전까지 10년간 거처하였다.



參巖先生遺集卷之一
詩
三松
葉戰獰風老根盤積土榮千秋特立節謾作路傍亭
參巖亭
劍舞山亭起秋風意轉采谷虛雲氣薄地僻日華遲
宇宙昇平後男兒少壯時中宵歌激昂心期獨自知
劍舞山
不憐舞劍名無實却怕山前士有虛若使項兒曾到
此鶴巔一髮獨嵬如
敬次函丈西厓先生讀易詩韻
易學師門道不迷羲文日月揭河西眞至到處傳消
息坐待雞聲聳夜啼
次舒川望海亭韻二首 辛卯秋
悚宇如飛竹栢端西來正值歲時寒萬頃波濶神龍
國一抹雲橫出日觀幾處蜃樓消息惡獨臨高閣酒
杯寬至今禹貢全滄海苗格暗前欲舞干
海之爲物大聖化凖其平峽口雲如障天邊日正明
從知鵬背遠憎看馬島橫壯士遊觀地長風萬里情
書

양촌 권근 선생 유허비, 유배지 익산 몽환 마을에…

양촌(陽村) 권근(權近) 선생 유허비는 전라북도 익산시 임상동 몽환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양촌 선생이 유배 생활을 하며 입학도설(入學圖說)을 저술한 역사적인 장소이다. 추밀공파 익산종중 권임하 회장 등은 선생의 뜻을 기리고 귀중한 문화유산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 2015년 11월 5일 유허비를 건립했다.

양촌 선생이 유배당했던 이곳은 바다와 같은 넓은 호수로 둘러싸인 섬이었다. 지금은 광활한 곡창지대로 변모한 유허비 주변이 어느 때에 둑을 쌓아 바닷물을 막았는지 알 수 없으나 유허비의 안내문에 의하면 호수는 그 둘레가 80리나 되는 바다같이 넓은 황등호수였고, 그 황등제(黃登堤)는 김제 벽골제(碧骨堤)와 고부군의 눌제(訥堤)와 더불어 당시 국내 3대 제(堤)였다고 이 지역에 전해져 오고 있다 한다. 호수로 둘러싸인 소안(沼岸) 지역에는 임상, 월성, 정족동의 16개 마을이 옹기종기 모여 살아오고 있었으며 당시 호수의 안에 살고 있다고 하여 이 지역을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소안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 소안에서 코앞에 보이는 황등만 가려고 해도 배를 타야 했다고 한다.

양촌 선생이 유배를 가자 그곳 마을 사람들은 당대의 유명한 유학자가 유배를 왔다며 어린아이들에게 유학을 가르쳐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양촌 선생은 어린아이와 같은 초학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철학을 쉽게 깨우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성리학의 기본원리를 그림을 그려 설명한 도설(圖說)을 그리게 되었다. 그래서 입학도설에는 천임심성합일지도(天人心性合一之圖) 등 40여 개의 도설(圖說)이 그려져 있다. 이로써 양촌은 한국 유학의 도설의 비조(鼻祖)가 되었다. 이 입학도설은 퇴계의 성학십도와 조선 유학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유허비 앞과 주변은 넓은 임옥평야이다. 그 허허벌판에 유허비가 서 있다. 양촌 선생 유배 시에는 들판이 모두 물로 출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촌 권근(1352~1409) 선생은 1390년(고려 공양왕 2년) 고려의 무신 윤이(尹彛)·이초(李初)가 명나라에 가서 명태조 주원장에게 이성계와 정도전 등이 군사를 일으켜 명나라를 치려 한다고 거짓으로 호소하였다. 이는 명나라의 힘을 빌려 이성계를 없애기 위하여 모의한 것이었다. 역사는 이를 윤이 이초의 난으로 부른다. 이때 사신으로 명나라에 머물던 동지밀직사사 조반이 급히 귀국하여 이 사실을 조정에 알리자, 이성계 등은 사람을 보내 윤이와 이초를 잡아들이고, 그해 5월 이색, 이임, 우인열, 이인민, 정지, 이숭인, 권근, 이종학, 이귀생 등을 청주(淸州)의 감옥에 가두고 국문하게 하였다.

그러나 6월에 청주지방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져, 민가와 옥사가 침수되고, 양촌 등 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은 객사 앞에 서 있는 은행나무인 압각수(충청북도 기념물 제5호)로 올라가 홍수를 피하여 목숨만은 겨우 구할 수 있었다. 압각수 앞에는 양촌 권근 선생이 옥에서 풀려난 후 지었다는 시비가 건립되어 있다.

대홍수 당시 일시 석방되었던 양촌은 동년 7월에 다시 익주(현 익산)에 재수감되었고. 고려왕조사에는 양촌이 11월에 입학도설을 저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해 1391년 정월 17일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의 어머니 국대비(國大妃)의 탄신을 맞아 양촌은 이숭인 등과 함께 사면되었다.(고려왕조사)

양촌선생유허비

문충공의 큰 아들 총제공의 후손인 권인식(추밀공파, 35世)씨와 권행완 편집국장은 2022년 11월 12일 역사의 현장인 유허비를 방문했다.

권행완 편집국장